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4

www.ucac.or.kr

12

2 0 1 4
시 립 예 술 단
합 동 공 연

오페라 라보엠

La Bohème

2014. 12. 12(금) 오후 8시

12. 13(토) 오후 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할인, 학생(초·중·고) 50%할인)

지휘 송유진(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연출 정갑균(오페라 전문 연출자)

출연 울산시립합창단 · 울산시립무용단

반주 울산시립교향악단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o n t e n t s



04

기획공연

- _ 호두까기 인형
- _ 뉴욕 할렘 싱어즈 내한공연
- _ 2014 난타
- _ 모닝콘서트



17

시립예술단 공연

- _ 오페라 '라보엠'
- _ 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 _ 시립무용단 송년공연 '해후'
- _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_ 시립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기획전시

- _ 세계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展
- _ 올해의 작가 개인전 - 박성란展



25

예술을 말하다

- _ 예술축제를 찾아서
-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8)
-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공연·전시가이드

- _ 12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2월호

통권 180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기획·편집 박용하·이미경

편집 박용운, 시미정,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와이즈발레단의 크리스마스 발레파티! 호두까기 인형

“겨울에 만나는 최고의 발레환타지”
“아이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올 겨울, 와이즈발레단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발레파티가 열린다.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2014년 12월 24~25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120여 년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의 낭만파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왕』을 바탕으로 한 2막 발레이다.

와이즈발레단은 원작의 발레 환타지를 살리면서도 1막의 지루함을 ‘탭댄스’와 ‘비보잉’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경쾌하게 풀어낸다.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호두왕자와 함께 눈의 나라와 과자 나라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클래식발레 3대 명작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낭만적이고 화려한 음악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춤의 향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막의 호두왕자를 지키는 탭댄스 병정들과 비보잉을 하는 쥐들의 다이내믹한 전투 장면이 와이즈발레단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고, 판다인형의 춤과 드로셀마이어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파티의 흥겨운 느낌을 생생히 전한다. 또한 드로셀마이어의 공연 중간 중간에 펼쳐지는 마술 같은 장면과 무대 전환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정통 클래식 발레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2막 ‘과자의 나라’에서는 30여명의 전문 무용수가 스페인춤, 아라



비아춤, 러시아춤, 꽃의 왈츠 등 동화 같은 군무가 감동을 선사한다. 그중에서도 사탕요정과 과자 나라 왕자의 그랑 파드듀는 본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자랑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90분간 1막과 2막의 춤이 모두 끝나고 객석의 조명이 켜지면 관객은 진한 감동의 여운을 느끼며 주역무용수들과 로비의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발레공연에 탭댄스와 비보이가 등장해 클래식과 대중적인 춤의 조화를 선보이는 것은 발레공연을 대중화로 이끌기 위한 와이즈발레단 단장 김길용의 발레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리듬탭의 선두주자 김길태가 이끄는 '탭꾼 탭댄스컴퍼니'와 재치 있는 쇼와 테크닉의 비보이 크루 '플라톤'이 함께 한다.

와이즈발레단은 지난 2011년부터 전막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올리고 있으며, 모든 공연이 전석 (유료)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다.



안무가 김길용

現 와이즈발레단 단장
전문무용단연합회 부회장
발레 STP 협동조합 이사

와이즈발레단 (Wise Ballet Theater)

와이즈발레단은 '클래식발레의 대중화'와 '창작발레의 예술적 가치창조'를 목표로 2005년 창단되어 연간 80회 이상의 해외/전국단위 공연활동을 힘없이 해오고 있으며, 현재 마포아트센터 상주예술단체 STP발레 협동조합원, 중국 광저우발레단과 MOU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Performance Guide

2014. 12. 24일 (수) 오후 7시 30분
12. 25일 (목) 오후 2시, 6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문예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

인터파크 1544-1555 / www.ticket.interpark.com

등급 48개월 이상 입장가

주최/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MBC

제작 와이즈발레단



NMAIS

A Special Christmas Blessing!

뉴욕할렘싱어즈 크리스마스 콘서트

2014 크리스마스 시즌 최고의 선물
당신이 꿈꾸는 뉴욕의 크리스마스를 만나다!!

뉴욕 할렘 싱어즈는 미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흑인들의 정통 문화 유산인 흑인영가(Negro Spiritual)를 하나의 완벽한 예술 형태로 보존 시키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뉴욕 할렘가에 위치한 할렘예술학교의 교수 및 동료 성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보이스 앙상블이다. 성악을 전공한 7명의 흑인 성악가, 2명의 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뉴욕할렘싱어즈는 17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 노예들의 시름과 설움이 담긴 애잔한 선율, 감동이 스며든 강한 리듬과 하모니에 종교적 내용이 들어있는 그들만의 민요를 불러 크게 각광 받았으며 그들이 전하는 자유의 서정시는 전 세계의 많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단원 각자가 미국의 유명 오페라 극장과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역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뉴욕할렘싱어즈는 흑인영가가 갖는 인간적 존엄의 메시지와 그 특유의 스타일을 원형대로 재현하고 또 현대감각에 맞게 재해석하는 놀라운 기교와 영감있는 연주로 정평이 나왔다.

1978년 '흑인영가의 의미와 뿌리를 잊지 말자.' 라는 생각이 모여 만들어진 이 팀은 처음 '뉴욕 할렘 영가단'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뉴욕할렘싱어즈'로 개명했다. 이들의 무대는 미국 흑인음악의 모태가 되는 흑인영가뿐만 아니라 흑인영가에서 파생된 가스펠부터 블루스, 재즈, 캐롤, 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뉴욕의 크리스마스를 그대로 즐기는 듯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뉴욕할렘싱어즈'는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등지에서 수 차례 공





연에서도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가지는 내한 순회 공연에서는 9차레나 매진이 될 정도로 사랑받고 있으며 내한공연을 통해 많은 한국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과 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2009년, 뉴욕할렘싱어즈를 훌륭하게 이끌어 온 린다 트와인에 이은 2대 음악감독 이마커스 하퍼(é Marcus Happer)를 영입하며 뉴욕할렘싱어즈의 특유의 리듬, 거친 음색, 정제된 하모니, 독특한 음악성을 잘 살려 대중들에게 깊이 있으면서 즐겁게 다가갔으며 한층 더 흥겹고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블로는 In concert (ARC 1991-2), Free at last (ARC 1995-2), Swing Low Sweet Chariot (ARC 2021-2), Dry Bone (ARC 2024-2),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인 Carol Of Harlem (ARC 2026-2) 등이 있다.

뉴욕할렘싱어즈는 젊은 후배들이 블루스, 재즈, 요즈음의 레게, 랩 등 흑인영가에서 파생된 음악들을 수준 높은 음악으로 잘 발전시켜나가면서 정작 그 뿌리인

영가를 점차 잊어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영가를 보다 완벽한 형태로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고자 팀을 만들었다.

미국 음악의 뿌리라 칭해지는 흑인영가는 1691년 미국에 노예로 팔려 왔던 아프리카 서부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시작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들에게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허락되는 것이 노래였고, 마음속의 간절함과 호소력을 유일한 의사 표현인 음악으로 토해내었던 것이 흑인영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접한 신앙 생활 속에서 흥과 한을 영가라는 형태에 담아냈던 것이다.

뉴욕할렘싱어즈의 즐거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무대는 이러한 역사를 잘 계승시켜 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거칠지만 섬세한 음색과 그 음색이 만들어 내는 흑인영가 특유의 하모니, 그 속에 깊이 파고든 간절함과 소망이 음악을 더욱 더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뉴욕할렘싱어즈는 흑인영가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지고, 더욱 가깝

게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함께 전 세계에 영가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최선을 다해 노래하여 뉴욕할렘싱어즈가 들려주는 음악을 통해 흑인영가 속에 흐르는 인간평등의 정신, 자유와 믿음과 소망 등 여러 의미들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12. 18(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30,000원
문의 문예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등급 초등학교이상입장가
주최/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

난타는 칼과 도마 등의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주, 깜짝 전통혼례, 관객과 함께하는 만두썰기,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삼고무, 가슴이 뻥 뚫릴만큼 시원한 엔딩의 드럼연주 등으로 구성되는 '난타'는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파워풀(powerful)한 공연이다.

1997년 10월 초연부터 폭발적 반응으로 현재까지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하였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하여 작품성을 높여왔다. 해외 첫 데뷔 무대인 199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으며, 이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호주 등 계속되는 해외공연의 성공을 발판으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이루었다. 2004년 3월 7일, 브로드웨이 Minetta Lane Theater에서 아시아 최초로 장기공연에 들어간 난타는 2005년 8월 7일, 성황리에 1년 6개월간의 막을 내린다.

현재 서울과 제주도의 전용관에서 연중 상설공연 중인 '난타'는 한국에서는 전무후무하게 15년째 장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 명의 요리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즐겁게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지배인의 깜짝 등장!

잡채, 인절미, 크림케이크 등등등! 다짜고짜 요리 목록을 읊으며

예정에 없던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라는 깜짝 명령!

설상가상 낙하산 주방장인 매니저의 조카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천방지축 사고뭉치였던 것!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시간! 한 시간!

과연 이 사촌사가 모여 완벽한 결혼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끊이지 않는 에피소드, 쏟아지는 웃음과 두드림! 스트레스 해소 샤샤삭~

| 캐릭터 |

연미복에 기름 바른 올빽 헤어스타일의 깐깐한 Manager

6시까지 결혼식 피로연을 위해 요리사들의 위생검사, 케익만들기, 청소 등을 계속해서 시킨다. 자기 조카를 주방으로 낙하산 태워 보내 주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장본인.

요리사들의 소심한 리더, 주방장 Head chef

부하 요리사들에게 가끔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금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 화려한 칼 솜씨를 자랑하며 관객과 함께 하는 장면에서 큰 인기!

주방의 홍일점, 섹시한 분수 요리사 Hot Sauce

때로 분수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보여주는 파워풀 홍일점. 섹시가이와 양증맞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끼여든 네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터프한 외모의 근육질 요리사, Sexy guy

터프한 외모 만큼이나 돼지잡기, 칼 갈기, 쿡후 등 파워 넘치는 행동을 보여주는 섹시가이. 주방의 육체적 지주로 여자 요리사 핫소스를 매료시켜 사랑을 나눈다.

주방의 천덕꾸러기 낙하산, 네류 Nephew

매니저의 힘으로 주방에 들어온 낙하산 네류. 엉뚱하면서도 덩방대는 성격으로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극 마지막에는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12. 27(토) 오후3시, 7시 / 12. 28(일) 오후2시, 6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문의 문예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

인터파크 1544-1555 / www.ticket.interpark.com

등급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주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제작 피엠씨프러덕션

• 2014 모닝콘서트 시즌7 • 국내 최정상 재즈밴드

미국, 프렐류드의 Jazz Christmas



Performance Guide

2014. 12. 16(화) 오전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000원(회원 30%, 단체 20%)

문의 문예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등급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주최 울산광역시

제작 울산문화예술회관

프렐류드는 2003년,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재즈 퍼포먼스 학사 재학생들로 결성되었다. 유학생, 교포 2세, 그리고 당시 버클리 내에서 최고의 드러머로 인정 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가세해 밴드가 탄생했다. 석사 공부를 위해 뉴욕과 인디애나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나,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고, 보스턴 지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데뷔작 “Croissant”을 2005년에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규 7집, 국악 프로젝트앨범 FLY IN - 날아든다 등 꾸준한 창작활동과 매년 2회씩 진행한 정기공연을 통해 이제는 단언코 최정상 재즈밴드라 불린다.



프렐류드를 일컫는 많은 수식어들 중 “침체기에 있는 재즈시장에
매번 활력을 불어넣는 밴드”라는 말이 재즈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음을 대표한다.
꾸준한 앨범활동뿐만 아니라 네이버 “온스테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김하늘/장근석 주연의 영화
“너는 펫” 등에 출연했으며, 2012년에는 전국투어 공연을 하기도 했다.
대중이 선택한 아티스트임이 분명함을 증명하듯 네이버 주최로 매년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한국 재즈의 축제,
리더스폴 투표”에서 전 멤버가 선정되어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유대얼 감독이 연출한 영화 “더 재즈 퀵텟”에서는 주연을 맡기도 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이질감 없이 대중들의 일상에 녹아 드는 편안함을 동시에 주는
프렐류드는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1_피아노/ 리더 고희안

보스턴 버클리 음대 (Berklee College of Music) 학사
뉴욕 대학교 (New York University) 재즈 퍼포먼스 석사 졸업
버클리음대 2002~2003 piano department chair award 수상
현 국제예술대학교 전임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외래교수,
프렐류드 리더, 고희안 트리오

02_베이스 최진배

보스턴 버클리 음대 (Berklee College of Music) 학사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재즈 스터디 석사 졸업
Berklee College of Music world tour scholarship award(2004)
웅산 밴드, 민경인 트리오, 론 브랜튼 밴드, 치코 밴드 의 베이스리스트
현 국제예술대학교 전임교수,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단국대 출강

03_색소폰 리차드 로(노정진)

보스턴 버클리 음대 (Berklee College of Music) 학사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수여하는 Presidential Education Award,
Musical Teacher Association Scholarship 수상
인디애나 대학 블루밍턴 -재즈 스터디 석사 과정 졸업
2012 재즈피플 Reader's Poll Saxophonist 선정
현 광운대학교 조교수

04_드럼 한웅원

2003서울드럼페스티벌 대상/ 2009재즈피플 1월호 2009 Rising Star 선정
캐나다 2011 Banff International Workshop in Jazz and Creative Music에 선발 및 투어공연
한웅원 1집 "Traveling to Face Myself" 발매
베이스리스트 Steve Bailey 내한 클리닉 세션
바이브, 이은미, 오종혁, 서영도, 박주원, 정민아 등 다수 음반 녹음
고희안트리오, 서영도, 일렉트릭 앙상블, 비안트리오, 이선지 밴드등 활동 중





울산시립예술단이 총출연하고,
오페라의 거장 정갑균의 연출로 펼쳐지는

전막 오페라 공연 '라보엠'

La Bohème



연출자
정갑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전과정 졸업
정명훈의 추천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La Scala' 극장에서 연출 수업
최초의 국악오페라 '직지' 연출 _ 박범훈 작곡
국립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 '겨레의 노래' 연출
국립창극단 40주년 및 한국 창극 100주년 기념작 '다섯바탕' 연출
박범훈의 교성곡 '넌' 연출
영산예술단 전통연희극 '영원한 사랑 춘향이' 연출
국립창극단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초청작 '홍보전' 연출
창작 오페라 장일남 작곡 '녹두장군 전봉준' 대본 및 연출
창작 오페라 박범훈 작곡 '직지' 대본 및 연출
창작 오페라 백병동 작곡 '눈물 많은 초인' 대본 및 연출
서울시 대표 창작 오페라 '연서' 연출
오페라 '사랑의 묘약', '까발레리아 투스티까나',
'토스카', '안드레아 셰니에', '피가로의 결혼', '루치아', '라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등 130여편 연출
독일 프랑크푸르트 JAHRHUNDERTHALLE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독일 칼스루헤 오페라 극장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터기 아스펜도스 야외 오페라 극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연출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50th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동양 연출가 최초)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역임



| 등장인물 |

미미(Mimi 로돌포의 애인) / 소프라노 김나정, 김성아
 로돌포(Rodolfo 시인) / 테너 정필운, 김정권
 마르첼로(Marcello 화가) / 바리톤 최판수, 최대우
 콜리네(Colline 철학자) / 베이스 배영철, 박성권
 쇼나르드(Schaunard 음악가) / 바리톤 이병웅, 이승우
 베노이트(Benoit 그들의 집주인) / 바리톤 박광훈
 알친도로(Alcindoro 부유한 노신사) / 바리톤 박광훈
 무제타(Musetta 마르첼로의 애인) / 소프라노 김수미, 김희정
 파르피뇰(Parpignol 장난감 상인) / 테너 김용근
 세관원 / 베이스 서병철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 파리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1830년경 파리, 크리스마스 이브. 화가 마르첼로와 시인 로돌포가 사는 다락방에 철학자 콜리네와 음악가 쇼나르드가 찾아 온다. 모두 파티를 하러 파리 라탱 지구로 나가지만 시인인 로돌포는 원고를 정리하기 위해 혼자 남게 된다. 이 때 미미라는 옆 집 여인이 촛불을 빌리러 오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몇 주 후, 미미는 자신이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로돌포와 돌아오는 봄에 헤어지기로 한다. 로돌포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미미의 폐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빠지고, 미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데...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로 각색되기도 한 오페라 라보엠은 예술과 가난한 삶 속에서 온갖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제1막

장소는 초라한 한 아파트의 다락방으로,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이곳에는 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중 로돌포는 시인이고 마르첼로는 화가이다. 이들은 지금 춥고 배가 고프다. 로돌포는 자기가 쓴 5막으로 구성된 희곡 작품의 원고로 불을 피운다. 그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녹이려는 순간에 철학자인 콜리네가 들어온다. 그 뒤를 음악가인 쇼나르드가 싱글벙글거리며 술과 음식 그리고 약간의 돈을 마련해 들어온다. 이들 네 사람은 쇼나르드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무스라는 카페에 가기로 결정한다.

로돌포는 그들을 먼저 보낸 후, 홀로 남아서 작품을 손질한다. 그 때 머뭇거리는 듯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창백한 얼굴의 미미가 초를 들고 들어오면서



촛불을 이방에서 붙여가도 좋으냐고 묻는다. 그녀는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의자에 몸을 내던지듯 앉는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나간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자기 방문 열쇠를 떨어뜨렸다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제2막

모무스 카페 입구에 놓인 탁자가 눈에 띈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휴일을 맞이한 사람들의 봄비는 모습을 묘사하는 흥겨운 음악이 울려나온다.

로돌포는 자기가 선물한 분홍색의 새 보닛을 쓴 미미를 데리고 그의 친구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간다. 장난감을 파는 노점상인인 파르피놀이 보이고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있다. 로돌포는 자기가 선물한 분홍색의 새 보닛을 쓴 미미를 데리고 그의 친구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간다.

이 무렵 마르첼로의 첫애인이었던 무제타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알친도로와 함께 들어온다. 알친도로는 돈 많은 정부 고관으로서 현재 그녀의 애인이다. 무제타는 한참 동안 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보고는 마르첼로에게 공연히 수작을 건다. 처음에 마르첼로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녀가 노래를 부르자, 그도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 무제타는 알친도로에게 자기의 구두를 수선해 오라고 시켜 그를 내보내고는 그들과 어울린다. 그들은 알친도로가 주문해 놓은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는 군악대들과 함께 행진하며 간다. 그들이 지불해야 할 많은 금액의 계산서를 알친도로에게 남겨둔 채..

제3막

파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난 후, 몸이 허

약하여 얼굴이 창백하고 기침을 자주하는 미미가 마르첼로의 집을 찾아 눈이 덮인 거리를 천천히 걸어온다. 미미는 로돌포와의 문제를 마르첼로와 상의하기 위해서이다.

자기에 대한 로돌포의 사랑은 지나칠 정도로 질투가 심하고 의심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밥먹듯이 싸우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므로 그와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였다. 마르첼로는 그 거리에 있는 한 여관에서 무제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때 로돌포가 여관에서 일어나와 미미는 얼른 나무 뒤로 숨는다. 그는 마르첼로에게 자기의 고민을 늘어놓다가 격앙하여 불평을 퍼붓는다. 그때 미미가 기침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발각되고 만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면서 슬픔에 젖어 이별의 노래를 부르고 결국 미미와 로돌포, 마르첼로와 무제타는 서로 헤어지기로 한다.

제4막

다시 보헤미안들이 살고 있는 다락방이다. 1막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고 로돌포는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로돌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에게 사준 분홍색 보닛을 감상에 젖은 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른다. 무제타를 통해 미미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로돌포가 미미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힌다.

방에는 이제 로돌포와 미미 단둘만이 남았다. 미미는 행복했던 시절을 즐겁게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드럽게 부르고는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다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쇼나르드가 비로소 미미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Performance Guide

2014. 12. 12(금) 오후 8시/ 13(토) 오후 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할인, 학생(초·중·고) 50%할인)

지휘 송유진(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연출 정갑균(오페라 전문 연출자)

출연 울산시립합창단 · 울산시립무용단

반주 울산시립교향악단

시 립 교 향 악 단 특 별 기 획

2014 송년음악회

201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로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을 울산시민들에게 선사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린 김영욱의
귀에 익은 멜로디를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다.



Program

Performance Guide

2014. 12. 19(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화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청소년(초·중·고) 50%할인)

협연 김영욱(바이올린)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작품.47 3막중 바카넬라 춤
Saint - Saëns/“Samson et Dalila” opera in ccts, op.47, Dance bacchanale
- 베토벤 / 로망스 2번 F Major
Beethoven /Romance No. 2 in F Major, op. 50
- 사라사테 / 지고이네르바이젠 op.20
Sarasate / Zigeunerweisen op. 20
(앵콜: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Massenet / Thais, Méditation
- 휴 식 (15분)
- 차이콥스키 / “호두까기 인형”하이라이트
Tchaikovsky /Ballet “The Nutcracker” op. 71
(Acte II No.14 Pas De Deux)
- 앤더슨 /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Anderson / A Christmas Festival
앵콜 : Anderson / Sleigh Ride(앤더슨 / 썰매타기)



바이올린 김영욱

‘폭발력 있는 연주와 관객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은 이성주를 사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을 했다. 2005년 서울예고 입학, 이듬해인 2006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 입학한 영재로 1999년 한국음악협회, 1999년 한국음악신문, 2000년 음악교육협회 주최 콩쿠르 1등 및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03년 국민일보, 한세대 음악콩쿠르 1위, 2004년 스트라드 현악콩쿠르 1위, 2004년 이탈리아 카네티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주니어 부문 3위, 2008년 동아음악 콩쿠르 1위를 수상했다. 최근의 솔리스트로서의 수상기록으로는 2011년 베오그라드쥬네스 국제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으며 2011년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3위 및 2013년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독주자로서의 활동과 동시에 실내악 연주에도 독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오사카 국제 실내악 콩쿠르 3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3위에 입상했다. 2012년 오스트리아 국제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에서 3위 수상과 더불어 제 1회 아트실비아 재단 실내악 오디션에서 대상, 2012년 9월 세계적으로 실내악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ARD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최초로 현악사중주 부문 준우승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2014년 2월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상 최초로 제 11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의 김영욱의 모든 실내악 수상기록은 수상부문 한국인 최초이다.

생상스 삼손과 데릴라 3막 “바카날레”

생상스가 작곡한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는 처음에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랑스내의 여론이 좋지 않아 상연이 되지 않았으나, 후에 상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후에 오페라에서 연주된 몇 곡을 발췌하여 모음곡으로 발간되었다. ‘바카날레’는 고대 로마에서 술의 신 바쿠스를 기리던 축제로 오늘 연주되는 ‘바카날레 춤’은 그런 축제의 화려함과 경쾌함이 잘 묘사되어있는 춤곡이다.

베토벤 로망스2번 F 장조

로망스란 곡의 음악 형식은 낭만적이며 시적인 정취를 지닌 곡을 뜻하는 외에도 서사라든가 혹은 연애 등 그 말의 뜻이 일정치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작곡자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타낸 즉흥적이며 시적인 정취를 소재로 한 곡으로 간주 된다. 한편 베토벤이 젊었을 때는 그 당시 유행하던 푸른 양복의 몸 맵시를 댔다는 점으로 보아 그 역시 여인들과 함께 청춘을 즐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같은 로맨틱 했던 감정이 이러한 명작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제2번은 먼저 서주없이 독주 바이올린이 칸타빌레의 아름다운 제1테마를 연주하면 오케스트라가 합주로 반복한다. 제2테마도 독주 바이올린에 제시되는데 남성적이고 위엄있는 제1번의 G장조에 비해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로망스의 테마는 전 후 3회 나타나며 마지막 코다에서 여러게 사라지는 아름다운 선율이다.

사라사테 / 지고이네르바이젠 op.20

사라사테의 작품 중 대부분이 그의 조국 스페인의 색채를 풍부하게 담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만인이 즐겨하는 이 작품은 집시들 사이에 전하는 무곡 등을 소재로 하여 작곡하였다.

제목은 “집시(Gypsy)의 노래”라는 뜻인데, 사라사테가 헝가리에 여행하였을 때, 그 지방 집시들의 민요 몇 개를 소재로 하여 그 기법과 표정을 가해 이 같은 바이올린 곡을 작곡하였다.

기교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곡이지만 아주 화려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세련된 문화인의 애상과 정열을 담은 곡이다. 이 곡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1부는 우울한 성격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변화무쌍한 기교가 로맨틱하다. 제2부는 조금 느린 템포인데, 극히 표정적인 것으로 명랑한 가요조이다. 제3부는 극히 쾌활하고 빠른 템포인데, 아주 열광적인 춤곡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 1. 2부는 집시들의 방랑 생활의 호탕함과 애수를 노래했으며, 제3부는 그들의 제멋대로 날뛰는 광경을 암시한 것이다.

2014 송년 기획 공연

해후 邂逅

2014년도를 갈무리하는 울산시립무용단 마지막 무대로
한해 동안 울산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았던 무용단의 대표작품과
울산지역의 무용 예술인이 함께해 화합과 우정,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풍성하고 신명나는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립무용단의 2014년도 한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무대로
2015년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Program

- 타 / 울산시립무용단
- 무녀도 / 김외섭((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 울산한량무 / 울산한량무보존회
- 태평무 / 김미자((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고문)
- 양반춤 / 울산학춤보존회
- 월향 / 정인숙((사)한국문화예술평의회 무용연합회장)
- 진도북춤 /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12채 교방장고춤 / 한혜경, (사)한혜경 춤보존회
- 꽃의 유희 / 울산시립무용단

Performance Guide

2014. 12. 6(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안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지도 박정은(울산시립무용단 지도자)

특별출연 한혜경(한혜경춤 보존회)

우정출연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산학춤보존회
울산한량무보존회, 김미자, 정인숙, 김외섭

출연 울산시립무용단 전단원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0회 정기연주회

2014 송년음악회

Program

- 로시니 / 도둑까치 서곡
- 특별출연 / 울산공업고등학교 관악부(지휘:윤덕노)
- 베토벤 / 교향곡 제1번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오는 12월 23일(화)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2014 송년음악회」연주회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로시니의 도둑까치 서곡을 시작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제1번으로 함께한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1번은 1800년 악성(악성: 성인(聖人))이라고 이를 정도로 뛰어난 음악가) 베토벤이 작곡한 최초의 교향곡이자 청년의 기개와 활기가 가득한 작품으로 당시대의 천재 작곡자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잇는 거장이 되고자 했던 베토벤의 야심찬 정신이 담긴 작품이라 하겠다.

특별출연으로는 울산공업고등학교 관악부(브라스밴드)가 함께해 관악기만의 힘차고 화려한 사운드를 연출해 줄 것이다.

사춘기 시작과 힘든 학업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소년기의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베토벤의 교향곡과 울산공업고등학교 관악부의 힘찬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음악으로 통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당당한 청소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2014년의 마지막 송년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휘 송유진

Performance Guide

2014. 12. 23(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000원



지휘 **한성용**

Performance Guide

2014. 12. 20(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000원

특별출연 소프라노 김시하, 신정초등학교 합창단

Program

- 시립청소년합창단 / 집시의 노래
 - Here in the wood so dark(적막한 숲속)
 - Strike the strings gaily(줄을 튕겨라)
 - Sleeves so broad(가벼운 옷)
 - Give a hawk a cage of purest gold(매는 자유롭게)
- 특별출연 : 소프라노 김시하
- 시립청소년합창단 / 가곡과 아리아
 - Luscia chio pianga(울게 버려주오)
 - Where'er you walk(당신이 가는곳마다)
 - Caro mio ben(나의 다정한 연인)
- 특별출연 : 신정초등학교합창단(지휘/최선주)
- 시립청소년합창단 / 뮤지컬&영화
 - 뮤지컬 맘마미아
 - 영화 「시스터액트」OST - "I will follow him"

울 산 시 립 청 소 년 합 창 단
제 3 0 회 정 기 연 주 회

2014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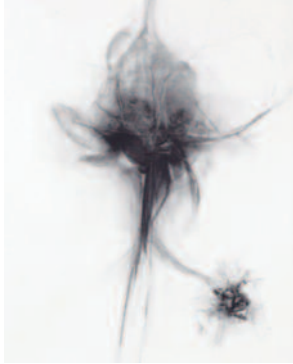
맑고 고운 소리로서 늘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이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한해를 마감하는 “2014 송년음악회” 연주회를 개최한다.

한해동안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2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등을 개최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합창노래를 많이 선사해 왔다. 또한 지역 예술단체 활성화 취지로 소년소녀합창단 및 초·중·고등학교 합창단을 특별초청해 다각적인 음악교류를 시행해왔다.

올해의 마지막 연주이기도 한 “2014년 송년음악회”에서는 합창음악의 모든 장르를 선보이게 되는데 유랑민족들의 음악으로 잘 알려진 집시(Gipsy)의 노래를 비롯해, 이탈리아 가곡과 아리아 그리고 영화음악에서부터 뮤지컬 곡들까지 장르별 가장 대표적인 곡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특별출연으로는 이탈리아 Leopold Mugnone 국제콩쿨 1위 및 다수의 국제콩쿨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시하씨가 출연하며 지역 학교 합창단으로는 신정초등학교 합창단이 함께 출연한다.

2014년 시립청소년합창단이 마련하는 송년음악회를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성란작〉 이종,
73×52cm, Conte on paper, 2012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4 「12월의 작가 박성란展」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와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12월의 작가 박성란展」이 12월 1일부터 3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쉽'에서 개최된다.

박성란 작가는 서울과 부산, 울산에서 개인전 4회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과 울산미술대전에서 우수상 및 특선 수상 등으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어떤 한 주제를 말하기 위해 다른 주제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는 뜻의 'Allegory(이중)'라는 테마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무한 생산과 소비, 현대인들의 욕망을 비롯한 집착까지 창조된 결과물로 보고 기계의 재생산되는 순환의 과정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박성란작〉 이종,
131×162cm, Conte on paper, 2014



〈박성란작〉 이중,
161×132cm, Conte on paper, 2014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가의 작품 속에는 유독 ‘꽃’의 형상이 많이 보인다. 어두우면서도 기계화된 자연의 이미지를 꽃을 통해 경고하듯 보이기도 하지만, 버려지는 부산물에서도 충분히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은 무채색의 섬세한 콩테 드로잉으로 반복적인 그리기와 지우기의 작업으로 건식재료의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과 행위의 반복으로 나타난 왜곡된 흔적들은 변형되거나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생명체로 재탄생되었다고 한다.

박성란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계 부속품, 고철, 폐자재 등만이 그 부산물은 아닐 것이다. 한 개인 또한 이 사회의 부산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작품의 동기를 전했다.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 하고자 연중 상설기획으로 추진하는「올해의 작가 개인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예술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고 있다.

박성란

Park, Sung-Ran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및 대학원 졸업
개인전 4회(서울, 부산, 울산)

| 수 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울산미술대전 우수상
울산미술대전 특선 2회, 신라미술대전 특선·입선

| 단체전 |

- 2014 프로젝트 사루비아(서울)
- 2013 아트쇼 2013 특별전(부산)
일산킨텍스 재능기부 박람회(경기도)
‘나는 그림이다’- 어린이를 위한
화가들의 미술전(울산)
- 2012 낯선 도시 3인전(부산)
여름 색깔들(서울)
- 2011 국민국가의 연 픽(부산), The scere(부산)
Power(중국), 신호보내기(울산)
김달진 미술연구소 ‘이 작가를 추천한다’ (서울)
The Neo Garden(뉴욕)
- 2010 제4회 인사미술제 특별전
굿 초이스-미래의 작가전(서울)
매개공간 교류전-화해의 풍경(대전)
2010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 한·중·일 오늘의 작가전(부산)
Real Chocolate - 달거나 혹은 쓰거나(부산)

〈박성란작〉 이중,
Conte on paper, 2014



Exhibition Guide

12. 1(월) ~ 12. 31(수), 30일간
갤러리 쉽

세계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展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현시점에 미술 분야에서도 젊은 작가들을 발굴, 한국의 문화예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국내 및 해외작가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청년작가 비엔날레」를 대구와 울산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세계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展」은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로부터 탈피하여 대구와 울산의 상호 소통과 교류로 자생력을 키우며 내실을 다지고 젊고 창의적인 작가들의 전시작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전시로 오는

12월 30일부터 13일간 전시장 전관에서 마련된다.

희망의 꿈을 안고 국제적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청년작가들이 '환경과 생명'이란 주제로 세계 및 국내작가 300명의 현대미술작품 총 300점이 전시되며, 세계 청년미술의 현주소와 한국미술의 전반적인 동향과 미래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각국의 미술가들 초대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담은 작품들은 평소 접하지 못한 이질적인 색상과 소재들로 나라별, 지역별 토속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전시로 기대가 모아진다.

자유롭고 다양한 붓 터치와 회화작품, 화려한 색상과 스크래치기법의 일러스트 등 전통적인 드로잉 방법에서 컴퓨터 그래픽까지 다채로운 혼합미디어의 활용과 독특한 아이디어 발상으로 새롭고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침체된 지역 전시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울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에서 지역으로 분산하여 문화의 균형발전에 새로운 동기가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및 전국 청년 유망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전시를 통해서 세계미술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청년예술가들의 국제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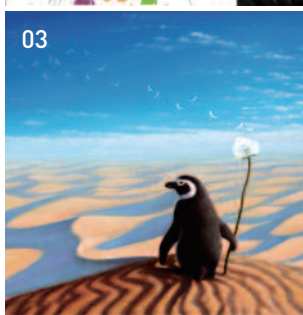
아울러, 세계 청년 정신의 중심에 중점을 두고 유망 청년작가들을 발굴하여 응축된 세계미술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며 문화적 역량과 문화예술의 일익을 다하는 성장된 면모를 만방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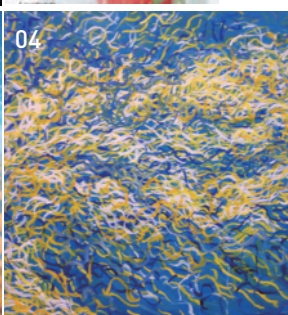
01



02



03



04

Exhibition Guide

12. 30(화) ~ 2015. 1. 11(일), 13일간
제1·2·3·4전시장(전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Ⅷ)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12월의 공연·전시



Speak of Art

북해 재즈 페스티벌

유럽 각지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를 찾아다니다 보니 저의 메일함은 마치 유럽 각국의 친구들에게서 편지가 오듯 수많은 축제현장에서 보내온 뉴스레터들로 들어차곤 합니다. 대부분 한여름의 뮤직 페스티벌이지만 그들은 일 년 내 바쁜 것 같습니다.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2015년 메인 오페라 작품은 무엇으로 결정됐고, 2015년 록페스티벌 라인업은 어떻게 되고, 2015년 재즈페스티벌의 티켓팅을 곧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그 메일들을 읽고 있노라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금 한창 유럽을 떠돌던 때로 돌아간 듯 착각에 빠져드는데요. 하긴 세계 유명 축제에 참여하자면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은 페스티벌 고어들의 기본자세입니다. 이미 웬만한 뮤직 페스티벌들은 내년 여름 축제 티켓부를 열어뒀는걸요. 아, 또 몸이 근질근질, 후다닥 마우스를 눌러 티켓을 구입하고, 비행기 티켓 이랑 숙소도 예매하고, 가뿐하게 가방을 챙겨 날아가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은 특히 북해로요!

● 글 윤하정 KBC(광주방송) 앵커, tbs 방송기자 등 방송과 YES24 공연매거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유럽 공연기행을 마치고 귀국.

북해 재즈 페스티벌 North Sea Jazz Festival

지중해, 발트 해, 아드리아 해 등 유럽을 여행하자면 수많은 바다들과 접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가장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이 북해가 아닐까 합니다. 저처럼 지리에 약하다면 순간 북해 위치가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요. 서유럽과 북유럽 사이, 그러니까 노르웨이와 영국, 독일에 둘러싸인 대서양 연해가 바로 북해입니다. 세계적으로 선박 운항 밀도가 가장 높은 해역 가운데 한 곳이죠. 그 북해 연안에 있는 몇몇 나라들 가운데 톨립과 풍차, 고흐와 렘브란트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북해 재즈 페스티벌(North Sea Jazz Festival)>이 열립니다. 보통 7월 중순에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미 2015년 축제의 티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해 재즈 페스티벌>은 197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시 사라 본(Sarah Vaughan),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와 스탠 게츠(Stan Getz) 등 유명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하면서 축제는 일약 국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고, 명성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수도 암스테르담 인근 로테르담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재즈를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미국 정통 뉴올리언스 재즈에서 스윙, 퓨전, 블루스, 가스펠, 펑크, 소울, 유럽의 아방가르드까지 해마다 천여 명의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무려 15개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150회 이상의 무대는 세계의 음악 팬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해 7만 명 정도가 페스티벌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북해 재즈 페스티벌 A to Z

〈북해 재즈 페스티벌〉은 매해 7월 둘째 주에 사흘간 열립니다. 로테르담 내 4층 규모의 컨벤션 센터인 아호이(Ahoy)에서 열리는데, 트램이나 버스 등을 이용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인 만큼 캠핑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로테르담 시내에서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귀가를 위한 대중교통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은 암스테르담에 이어 네덜란드에서 가장 교통편이 우수한 도시인데요, 한국에서는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으로 입국한 뒤 기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찾아갈 수 있고, 유럽 내에서는 저가항공 등을 통해 로테르담 국제공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북해 쪽만 해도 한여름이 우리나라처럼 무덥지 않습니다. 7월이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긴 소매 옷은 준비해야 합니다. 라인업은 보통 5월 정도에 발표되지만 한 해 전 11월부터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www.northseajazz.com/en>)를 통해 얼리 버드 티켓을 판매합니다. 페스티벌의 높은 인기만큼 축제가 다가오면 티켓은 어김없이 매진되는데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놔도 좀처럼 티켓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라인업이 마음에 쏙 들었다면 유럽의 다른 인기 페스티벌에 비해 교통편과 숙박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덜한 편이니 서둘러 티켓부터 예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티켓은 1일권과 3일권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페스티벌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와 콘서트가 열리고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도 옵션으로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티켓을 구입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색다른 매력의 도시 로테르담 Rotterdam

솔직히 〈북해 재즈 페스티벌〉을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로테르담이라는 도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관광객들 역시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면서도 로테르담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죠. 하지만 로테르담을 제대로 알게 되면 며칠쯤 느긋하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지리상 하늘길과 바닷길, 육로의 요충지인 로테르담은 일찍부터 공업, 상업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라 할 수 있죠. 그뿐인가요, 철학자 에라스무스의 고향이며 에라스무스 대학이 자리한 이곳은 대학의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도심으로 스며든 강과 빼곡히 들어찬 나무, 깨끗하고 반듯한 거리 등은 무척 인상적입

니다. 대학생이 돼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잔디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모양의 건축물들은 로테르담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체코의 수도 프라하가 19세기까지의 건축물들을 모아둔 박물관이라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은 현대건축의 경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유럽 도시에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공습에 로테르담 중심부가 크게 훼손된 데 기인하는데요,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옛것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모양으로 다시 설계한 것이죠. 건축의 도시답게 로테르담에는 기이한 건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행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북해 재즈 페스티벌〉 기간에는 아호이 컨벤션 센터 외에 도심 곳곳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겁게 로테르담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2015년 〈북해 재즈 페스티벌〉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뮤지션들이 무대를 가득 채울까요? 2015년 여름, 로테르담에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02

03



- 01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02 _ 아가멤논 무덤가의 엘렉트라
- 03 _ 소포클레스
- 04 _ 후고 폰 호프만스탈
- 05 _ 아가멤논의 장례식
- 06 _ 아가멤논을 죽인 후 클뤼템네스트라

독일 후기 낭만파 대표 대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VIII)

오페라 '엘렉트라' OP.58

'살로메'로 단번에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명성이 확립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그 다음 작품으로는 '엘렉트라'를 택한다. 그 사연을 알아보자. 슈트라우스가 문필가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 1874-1929)을 처음 만난 것은 '영웅의 생애'를 지휘하기 위해 파리에 머물던 1900년 3월초였다. 이 때 호프만스탈은 슈트라우스에게 자신이 집필한 발레대본의 음악 작곡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두 번째 오페라 '화재'를 작곡 중이어서 이 작업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작업은 무산이 되었

으나 두사람은 서로 서신 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가면서 오페라에 대한 공동 작업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 두사람의 관계는 1905년 '살로메' 초연을 전후하여 밀접해지는 전기가 마련된다. 호프만스탈은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을 졸업한 유대계 오스트리아 극작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서적을 무수히 탐독했고 대학시절에 이미 희곡과 시를 발표하게 된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고전문학까지 정통하였으며 회화, 무대예술과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다. 호프만스탈이 재해석한 고대 비극 '엘렉트라'는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인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모두 극으로 만들었다.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는 가장 뒤에 나온 작품으로 앞의 두 작품에 비해 간결하고 명료한 편이다.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에서는 어머니를 직접 죽인 오레스테스보다는 고뇌하며 독백하는 세여성 엘렉트라, 클뤼템네스트라, 크리소테미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극'으로 불린다. 호프만스탈은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를 원전으로 삼으면서 이를 더욱 과감히 생략하면서 그 분위기와 느낌을 부각시키면서 희곡을 집필했다.

연극 '엘렉트라'는 1903년 10월6일 연출가 막스 라인하르트(Max Reinhardt 1873~1943)가 감독으로 있던 베를린의 클라이네스 테아터(Kleines Theater)에서 상연을 시작하게 된다. 슈트라우스가 이 연극 '엘렉트라(Elektra)'를 관람하게 된 것이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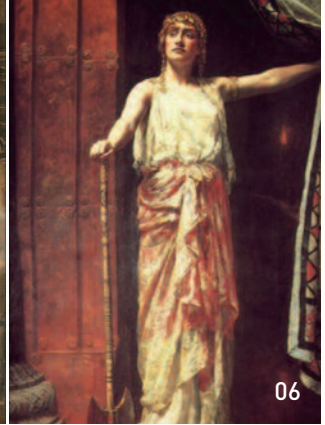
●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중이다.



04



05



06

슈트라우스는 이미 학생시절 소포클레스의 연극 ‘엘렉트라’의 일부에 음악을 작곡한 적이 있기에 본래 연극 ‘엘렉트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이 연극 자체가 오페라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녔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원래 ‘살로메’의 후속작으로는 희극 오페라를 구상하던 슈트라우스였지만 연극 ‘엘렉트라’를 보면서 호프만스탈의 예술적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이다. 슈트라우스는 ‘살로메’의 초연을 끝낸 후 연극 ‘엘렉트라’의 오페라화를 호프만스탈에게 제안한다. 호프만스탈 역시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호프만스탈은 연극 ‘엘렉트라’의 대본을 오페라 장르에 맞추어 더욱 요약하면서 상징적이고 깊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대본으로 손질한다. 슈트라우스가 ‘살로메’를 완성한 후부터는 슈트라우스, 호프만스탈, 라인하르트 3사람은 본격적으로 후속작에 착수한다. 1908년 9월 총보가 완성되고, ‘휴고 폰 호프만스탈에 의한 1막 비극’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들의 첫 번째 오페라가 완성된다. 이로서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극작가 콤비의 공동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연출가 막스 라인하르트까지 합류하게 된다. 이들은 1929년 호프만스탈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5년간 이루어진 공동 작업으로 오페라 ‘엘렉트라’, ‘장미의 기사’,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그림자 없는 여인’, ‘아라벨라’ 등 주옥같은 오페라들을 탄생시키면서 오페라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다. 훗날 스트라빈스키는 ‘파르지팔 이후의 오페라는 ‘엘렉트라’와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이 두 작품 뿐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만년의 슈트라우스 역시 자신의 회고록 ‘관조와 회상’에서 이 ‘살로메’와 ‘엘렉트라’를 자신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평하고 있다.

1시간 40분의 단막극인데 오케스트라 편성도 사상최대인 115명, 40대의 관악기, 트럼펫, 바그너 튜바, 첼레스타 등등 상당히 다양한 타악기가 포함된다. 1909년 에른스트 폰 슈흐 지휘로 드레스덴 궁정극장 초연된다. 초연 후 반응은 상반되었지만 초연한 후 1주일도 채 안되어 뉴욕을 필두로 베를린과 뮌헨에서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이듬해는 런던에서 영어 번역으로 오페라 공연까지 되었고, 같은 해에 이미 전유럽을 석권하면서 주요 오페라극장의 레퍼토리로 정착된다. ‘엘렉트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페라 시작 전의 배경을 필수적으로 알아야한다. 트로이 전쟁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출정한 미케네 아가멤논왕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노여움으로 출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왕비 클뤼템네스트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두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큰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쳐 순조롭게 원정길에 오르게 된다. (이 부분까지 글록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10년 전쟁 끝에 승리를 거둔 아가멤논은 트로이의 공주이자 무녀인 카산드라를 데리고 귀국한다. 하지만 왕비 클뤼템네스트라는 정부 아이기스토스와 공모하여 아가멤논과 카산드라를 갈과 도끼로 잔인하게 죽인 후 권력을 찬탈하고 왕비는 자신의 남은 두 딸과 아들을 쫓아낸다. 이 과정에서 딸 엘렉트라는 어린 남동생 오레스테아의 안전을 위해 그를 멀리 피신시킨다. 동생이 성인이 되어 돌아와 아버지의 복수를 해 줄 날만을 기다린다. 여기서부터 오페라의 시작이다.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는 대담하고 효과적으로 불협화음을 사용하여 박력과 공포 분위기, 복수의 정열을 급진적이고 극적 긴장이 폭발하도록 교묘하게 표현한다. 작곡기법도 다조(多調), 무조(無調), 복합 리듬 등이 난무하여 더 혁신적이고 전위적이다. 호프만스탈이 엘렉트라의 음악을 듣고 ‘암흑과 빛의 대조가 느껴진다’고 한 것은 유명한 얘기다. 하지만 군데군데 극단적인 낭만주의의 서정성으로 깊은 이상을 준다. 즉, 슈트라우스 특유의 달콤한 감성도 내포가 되어있으며 관현악법도 색채적으로 극을 진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이아생트 리고의 ‘루이 14세의 초상’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판 1

근대 시민 사회 이전 시기, 대부분의 미술 작품은 권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권력자의 모습을 담은 초상을 들 수 있습니다. 회화 혹은 조각을 통해 권력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예술의 힘을 빌려 영원히 남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털끝 하나까지도 모델과 똑같이 그리는 ‘전신사조(傳神寫照)’에 근원을 두고 사실적인 재현을 추구했지만, 서양의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대개 미화되고 심지어 신격화되기도 했습니다. 화가들은 그림의 주인공인 권력자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의복과 자세, 장신구, 배경 등등 화면 속 어느 것도 허투루 그린 것이 없었고, 모두 권력자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봉사했습니다. 이런 초상화는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고, 권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판 2

프랑스의 화가 이아생트 리고(Hyacinthe Rigaud)가 제작한 <루이 14세의 초상>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입니다(도판1). 리고는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손꼽히는 초상화 화가였고, 모델을 위엄 있고 돋보이게 하는 그 특유의 필치는 왕실 가족들뿐 아니라, 유력 성직자나 귀족들, 여러 유럽 왕실의 대사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았습니다. ‘태양왕(le Roi Soleil)’이라는 별명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루이 14세는 일생동안 절대왕정을 형성하는데 큰 공을 들였고, 이는 베르사유 궁과 정원, 그리고 여러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이 13세와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 안느 도트리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5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섭정으로 있었습니다. 유년기에 프롱드의 난 같은 여러 반란을 겪었고, 이는 그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자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유독 자신의 초상을 다수 제작하여, 당시에는 700여점이나 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것도 300여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초상 중 평범한 일상적

인 모습을 다룬 작품은 없고, 모두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제왕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도판 2), 무장한 용사,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태양신인 아폴론의 모습을 하

도판 1

이아생트 리고, <루이 14세의 초상(Portrait of Louis XIV)>, 1701, 캔버스에 유채, 277 × 194 cm, 루브르 박물관.

도판 2

앙리 테스틀랭(Henri Testelin), <고작 10세이지만 이미 프랑스의 왕인 1648년의 루이 14세의 초상(Portrait of Louis XIV, only ten years old, but already king of France)>, 1648, 캔버스에 유채, 205 × 152 cm, 베르사유 궁.

도판 3

장 노크레(Jean Nocret), <루이 14세와 왕실 가족(Louis XIV and the royal family)>, 1670, 캔버스에 유채, 305 × 420 cm, 베르사유 궁.



고 있습니다(도판 3). 특히 아폴론과 자신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형성한 ‘태양왕’ 이미지는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의 형태와 세부 장식 곳곳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초상>에서도 루이 14세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상화는 침실이나 서재 같은 보다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접견실이나 회의실처럼 공적이고 넓은 공간에 걸렸고, 따라서 상당히 크기도 상당히 컸습니다. 왕의 초상화는 대개 실제 인물 크기나 그 이상으로 크게 그려져 보는 이를 압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 벽에 높게 걸려 그림을 보는 이들이 그 아래서 왕의 초상화를 우러러보게 한 것도, 정치적인 권력을 암시하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림의 각 세부는 모두 절대 권력으로서의 왕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려졌습니다. 고대를 연상시키는 배경과, 금실로 테두리를 두른 진홍빛의 장막은 왕실의 장엄함을 돋보이게 하고, 그 앞에 있는 루이 14세는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백합이 금색으로 수놓인 대관식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부풀린 가발과 굽이 높은 신발로 키가 더 커보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입고 있는 의복의 세부는 구두의 보석 장식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난히 섬세하게 그려져, 담비 털과 벨벳, 자수가 놓인 실크의 감촉을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리고는 왕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합니다. 프랑스를 지배하는 절대 왕권의 주인의 위대함과 권위를 포착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레갈리아(Regalia)’라고 부르는 공식 행사 때 입는 옷과 몸에 지니는 왕권의 상징물로 한껏 꾸민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고, 프랑스 왕실 그 자체가 됩니다. 대관식 예복을 입고 서 있는 루이 14세의 모습에서는 유독 그의 다리가 두드러집니다. 리고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루이 14세의 나이는 63세였다고 합니다. 노화의 흔적이 드러나는 얼굴과 살집이 오른 상체에는 그의 생물학적 나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다리는 군살 없이 근육이 두드러지는 20대의 건장한 청년의 그것이라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발레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설파하던 재위 초기의 모습과, 절대왕정을 확립한 현재의 모습이 한 몸에 공존하는 듯도 합니다. 화가는 왜 이런 기묘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당시의 정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왕은 언젠가는 늙고 죽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군주로서의 그는 영원히 살아 시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대관식의 일부인 축성식과 도유식을 통해 국왕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영속적인 상징적인 신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왕이체론’을 통해 군주는 영원불멸하는 존재가 되었고, 리고의 초상화는 이러한 절대 왕조의 정치문화를 대변합니다.

이 초상화는 손자이자 스페인의 왕인 펠리페 5세에게 선물로 하사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지만, 1704년 살롱전에 출품되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루이 14세의 소장품으로 왕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리고는 이후 이를 여러 점 다양한 크기로 제작하기도 했고요. 공식 초상화로 쓰인 리고의 <루이 14세의 초상>은 베르사유 궁의 알현실에 놓였고, 왕이 궁에 없을 때에는 회의실에 놓여 왕을 대신했으며, 왕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림에 등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었다고 하니, 당시의 강력한 왕권을 짐작할 만합니다.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 is
the most famous Christmas ballet.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이 크리스마스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 ‘호두까기 인형’이 선사하는 동화적인 환상이 그리워 공연을 다시 찾게 된다. 무대 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의 반짝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차이코프스키의 매력적인 음악에 맞춰 무용가들이 선사하는 섬세하고 우아한 몸짓들에 반해 작품을 잊지 못한다. 또 펄펄 내리는 눈송이가 선사하는 동화적인 분위기에 설렘과 환상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기분이 중독성 있는데 그래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보러 공연장에 가면 놀라는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인 관람객이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을 여러 번 아니 매년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똑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작품이라도 늘 새롭다. 매년 투입되는 무용수가 다르고 같은 버전이라도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현장 분위기로 친근하지만 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역사가 켜켜이 쌓이는 것만큼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쌓아가는 추억의 두께도 꽤 깊어가고 있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코프스키가 50세 되던 해인 1890년에 위촉받았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로 꼽히는 작품으로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됐고 이후로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크리스마스 발레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처음에 이 작품의 작곡을 내켜하지 않았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Pyotr Ilich Tchaikovsky

1840 ~ 1893
러시아

| 주요작품 |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대서곡 1812년 Op.49
발레 모음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 Op.66	사계 Op.37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Op.71	슬픈 노래 Op.40의 2
환상적 서곡 로메오와 줄리에트	멜로디 Op.42의 3
슬라브 행진곡	우울한 세레나데 Op.26
환상적 교향시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Op.32	로코코풍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이탈리아 기상곡	다만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Op.6의 6
세레나데 Op.48	예브게니 오네긴

고 한다. 원작인 독일 작가이자 작곡가였던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이 발레에 쓰기에는 약간 유치한 내용인데다 동화의 판타지를 표현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었다. 더구나 당시 차이코프스키는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일도 많았고 차이코프스키의 정신적 지주였던 후원자 폰 메크 부인과의 관계도 끝나가고 있었다. 거기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가고 있었던 것도 차이코프스키에게겐 심적 부담을 갖게 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곡에 착수하자 모든 게 순조로웠고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에서 흔히 느껴지는 애상적인 분위기 없이 밝고 달콤한 선율의 사랑스러운 발레음악이 완성됐다.

그러나 이 작품이 초연 당시부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자체는 워낙 귀에 착착 감기는 선율미의 곡들이라 초연 당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고 발레 전곡 가운데 8곡을 골라 만든 관현악 모음곡도 널리 사랑을 받았지만 발레작품 자체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1940년에 나온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 보면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지금도 공연되지 않고 음악만 남아있는 발레”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발레 작품으로 ‘호두까기 인형’이 진가가 발휘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호두까기 인형’이 발레로 공연의 히트를 기록한 것은 1954년에 이르러서였다. 러시아 황실 발레 출신의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 1904~1983)이 이끄는 뉴욕 시티 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에서 어린 무용수를 대거 출연시키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됐고 이후 발레 작품으로 ‘호두까기 인형’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작품의 스토리는 간단하다. 주인공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은 후 잠이 든다. 그리곤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생쥐 왕의 습격에 맞서 싸우며 보내는 꿈같은 하룻밤을 그려내는데 서곡에서부터 환상적인 과자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춤들,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에서 가장 유명한 ‘꽃의 왈츠’까지 발레와 음악의 아름다운 조우 속에 동심을 자극하는 판타지를 느낄 수 있다.

연말이면 유니버설 발레단과 국립 발레단 등의 여러 발레단이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린다. 그리가로비치 버전(볼쇼이 발레단), 바이노넨 버전(키로프 발레단), 발란신 버전(뉴욕 시티 발레단), 누레예프 버전(파리 오페라 발레단), 바리시니코프 버전(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등 전해지는 버전만 해도 10여 개가 돼서 같은 작품이지만 어느 버전인지에 따라 또 어떤 발레단이 공연하는지에 따라 ‘호두까기 인형’은 늘 다르다. 그래서 매년 연말 찾아오는 ‘호두까기 인형’은 같은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굳이 발레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면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Andrei Konchalovsky) 감독의 영화로 ‘호두까기 인형’를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동화 속에 나올 듯한 외모의 엘르 패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현실과 판타지가 섞인 환상의 세계가 3D영화로 제대로 그려진다.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의 음악뿐만 아니라 교향곡 5번의 3악장을 편곡한 노래도 있고 영화가 전통 발레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뮤지컬 영화로 정말 잘 만들어졌다. 전통 발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보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올 겨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꽤 근사한 2014년의 마무리가 될 듯 하다.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제17회 울산교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교육청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건전하고 밝은 애창곡 합창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매년 다양하고 참신한 레퍼토리를 소개하여 지역 합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정기연주회

제16회 울산교사 리코더 합주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9(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교사리코더 합주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가요, 동요 등 다양한 음악을 리코더 합주로 연주하여 울산초등학교생리코더경연대회 수상팀과 어린이합창단, 성악팀이 찬조 출연

2014 국악 한마당

공연정보 12. 11(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국악관현악/ 실내악 및 민요연곡

클래식음악제 (김정호 작곡연주회)

공연정보 12. 12(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음악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지역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와 음악협회 회원들의 협연 공연

더 스트링스 아마추어 창단 연주회 및 제1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3(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더 스트링스 아마추어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주위에서 쉽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녹음이 아닌 라이브로 들려주며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연주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4(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를 모델로 창단이 되어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음.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이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

남구 구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공연정보 12. 16(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 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오페라 등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섬

창작무용극 '전화맹'

공연정보 12. 18(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무용협회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신라말과 고려초에 활동한 울산의 藝妓(예기) 전화맹에 관한 일대기를 창작무용극화 하면서 울산 탄생사를 가미한 대역사 무용극

제8회 색소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9(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색소폰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색소폰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시민들에게 색소폰을 알리고자함

제6회 남구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0(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진정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연을 통해 또한 영상을 통해 담아내고자 이번공연을 기획

2014 이루마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정보 12. 21(일)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ubc울산방송
입 장 료 V석 88,000원, R석 77,000원, S석 66,000원
공연개요 한국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펼쳐는 아름다운 선율과 현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애뜻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제14회 삼신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1(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삼신윈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대표 관악합주 단체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정유정의 팔도 민요 기행

공연정보 12. 24(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예인들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젊은 국악인의 소리와 춤으로 만나는 여행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공연정보 12. 25(목) 11:00, 14:00,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화니컴퍼니
입 장 료 전석 25,000원
공연개요 어린이 명작뮤지컬 브레멘 음악대와 함께 하는 모험이야기

제13회 명정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6(금)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명정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명정초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2014 김정화 무용단 정기공연 '인내천'

공연정보 12. 28(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정화무용단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1부:창작무용(처용, 처용의춤),
2부:전통무용(북춤, 승무, 산조춤, 동래한량무, 장고춤, 풍물판굿)

이미자 노래인생 55년 대공연 In 울산

공연정보 12. 30(화) 14:00,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주)하늘소리
입 장 료 V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공연개요 노래인생 55년을 집대성할 새로운 연출, 새로운 무대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아시대 마지막 거장 이미자의 기념비적인 무대'로 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전시가이드

EXHIBITION

제21회 울산 교직원 작품전

전시기간 12. 5(금)~12. 9(화), 5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 교육청 (김복만)
전시내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서양화, 동양화, 서예, 문인화, 공예, 조소, 사진, 시화 8개 분야 200점의 작품 전시

봄의 향연 그 아름다움

전시기간 12. 10(수)~12. 15(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들꽃모임 (박애자)
전시내용 사군자를 비롯한 문인화의 화조도와 정통공예를 접목시킨 작품 70점 전시

제15회 초등사진교과교육 연구회전

전시기간 12. 10(수)~12. 15(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 (이한규)
전시내용 '내 마음의 만남 열한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회원들의 마음속에 그려오던 동경 또는 이미지를 표출한 사진작품 30점 전시

전시 가이드

EXHIBITION

울산대 평생교육원 사진작품전

전시기간 12. 10(수)~12. 15(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 평생교육원 (김섭)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과정 학생들의 전시로 초급, 중급, 작가반 사진작품 총 40점 전시

울산대 평생교육원 미술작품전

전시기간 12. 10(수)~12. 15(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 평생교육원 (김섭)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현대미술실 기과정 학생들의 작품 50점 전시

제42회 울산서도회전

전시기간 12. 17(수)~12. 22(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도회 (유용하)
 전시내용 문자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다각적으로 표현한 한문, 한글, 문인화 등 다양한 서예작품 90점 전시

김은아 개인전

전시기간 12. 16(화)~12. 21(일),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김은아)
 전시내용 관람객의 진정한 보호색을 찾아보는 계기 마련과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개인 전시회로 독창적 작품 16점 전시

남구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

전시기간 12. 16(화)~12. 21(일),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남구문화원 (김호언)
 전시내용 남구문화원 문화학교 회원들의 작품전으로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 80점 전시

제13회 뉴비전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16(화)~12. 21(일),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뉴비전사진동호회 (박외덕)
 전시내용 생태도시로 변모한 울산의 대표적인 길을 사진으로 담은 작품 100점 전시

제7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12. 23(화)~11. 28(일),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포토라이프클럽 (이태열)
 전시내용 울산 지역의 골목길을 재조명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 순수창작, 응용창작사진 작품 등 70점 전시

제12회 창 회원전

전시기간 12. 23(화)~12. 28(일),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창 (박혜정)
 전시내용 창신대학 미술과 동문 정기전으로, 색감과 형태, 소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개성을 표현한 구상, 비구상 작품 40점 전시

제9회 울산인물작가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23(화)~12. 28(일),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인물작가회 (강정희)
 전시내용 회원들이 울산 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순수인물을 주제로 한 초상화 작품 40점 전시

제14회 울산사생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23(화)~12. 28(일),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생협회 (최병화)
 전시내용 회원들이 지난 1년간 현장사생을 통해 작업한 실경 위주의 작품 50점 전시

12_대공연장

12_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1		01	
02		02	· 제17회 울산교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12. 2(화) 19:30
03		03	· 뒤란 12. 3(수) 19:30
04		04	
05		05	
06		06	· 무용단 2014 송년공연 '해후' 12. 6(토) 17:00
07		07	
08		08	
09		09	· 제16회 울산교사 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12. 9(화) 19:30
10		10	
11		11	· 2014 국악한마당 12.11(목) 19:30
12	· 오페라 [라보엠] 12.12(금) 20:00	12	· 클래식음악제(김정호 작곡연주회) 12.12(금) 19:30
13	· 오페라 [라보엠] 12.13(토) 16:00	13	· 더스트링스 아마추어 창단연주회 및 제1회 정기연주회 12.13(토) 19:30
14		14	·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14(일) 17:00
15		15	
16	· 남구 구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12.16(화) 19:30	16	· 모닝콘서트 12.16(화) 11:00
17		17	· 뒤란 12.17(수) 19:30
18	· 창작무용극 ‘전화맹’ 12.18(목) 19:30	18	· 뉴욕 할렘싱어즈 내한공연 12.18(목) 20:00
19	· 울산시립교향악단 2014 송년음악회 12.19(금) 20:00	19	· 제8회 색소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19(금) 19:30
20	· 제6회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2.20(토) 19:30	20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 12.20(토) 17:00
21	· 2014 이루마 전국투어 콘서트 – 울산 12.21(일) 17:00	21	· 제14회 삼신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21(일) 19:00
22		22	
23		23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 12.23(화) 19:30
24	·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24(수) 19:30	24	· 정유정의 팔도 민요 기행 12.24(수) 19:30
25	·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25(목) 14:00, 18:00	25	·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12.25(목) 11:00, 14:00, 16:00
26		26	· 제13회 명정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26(금) 19:00
27	· 2014 난타 12.27(토) 15:00, 19:00	27	
28	· 2014 난타 12.28(일) 14:00, 18:00	28	· 2014 김정화 무용단 정기공연 '인내천' 12.28(일) 17:00
29		29	
30	· 이미지 노래인생 55년 대공연 In 울산 12.30(화) 14:00, 17:00	30	
31		31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2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박성란展 12. 1(월)~12. 30(화) 30일간	· 전국야외조각 초대展 III부 ~'15. 1. 31(토) 115일간
02						
03						
04						
05	· 제21회 울산 교직원 작품전 12. 5(금)~12. 9(화) 5일간					
06						
07						
08						
09						
10	· 북의 향연 그 아름다움 12. 10(수)~12. 15(월) 6일간	· 제15회 초등사진교과 교육 연구회전 12. 10(수)~12. 15(월) 6일간	· 울산대 평생교육원 사진작품전 12. 10(수)~12. 15(월) 6일간	· 울산대 평생교육원 미술작품전 12. 10(수)~12. 15(월) 6일간		
11						
12						
13						
14						
15						
16		· 김은아 개인전 12. 16(화)~12. 21(일) 6일간	· 남구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 12. 16(화)~12. 21(일) 6일간	· 제13회 뉴비전사진동호회 회원전 12. 16(화)~12. 21(일) 6일간		
17	· 제42회 울산서도회전 12. 17(수)~12. 22(월) 6일간					
18						
19						
20						
21						
22						
23	· 제7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12. 23(화)~12. 28(일) 6일간	· 제12회 창 회원전 12. 23(화)~12. 28(일) 6일간	· 제9회 울산인물작가회 회원전 12. 23(화)~12. 28(일) 6일간	· 제14회 울산사생협회 회원전 12. 23(화)~12. 28(일) 6일간		
24						
25						
26						
27						
28						
29						
30	· 세계 청년작가 비엔날레 울산展 12. 30(화)~'15. 1. 11(일)					
31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쉽’,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시립무용단
2014 송년 기획공연

해후

邂逅



2014. 12. 6(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